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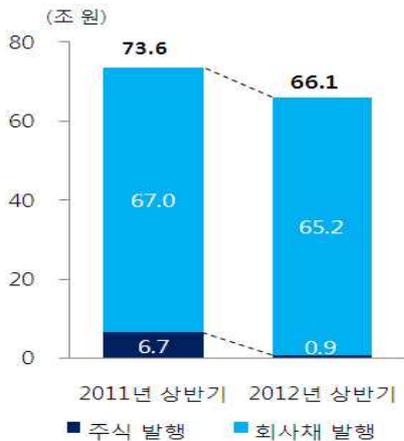
#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악화

최 원 선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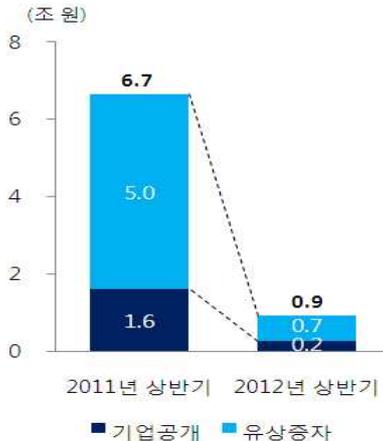
■ 2012년 상반기 기업의 증권공모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주식 발행과 회사채 발행 실적이 줄어들어 따라 전년 동기대비 10.2% 감소한 66조 1,188억 원을 기록함.

● 이와 같은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감소는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, 주식 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위축,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감소 등이 그 원인임.

〈그림 1〉 직접금융 조달실적



〈그림 2〉 주식 발행 실적



〈그림 3〉 회사채 발행 실적



■ 주식 발행 실적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모두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86.3%나 감소한 9,143억 원을 기록함.

● 기업공개는 주식시장 침체, 경기침체 지속 우려 등으로 IPO를 추진하던 기업들이 상장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84.6% 감소한 2,479억 원을 나타냄.

● 유상증자는 금융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, 대기업의 증자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불안정으로 증자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86.8% 감소한 6,664억 원을 기록함.

- 회사채 발행 규모는 ABS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감소세를 보여, 전년 동기대비 2.6% 감소한 65조 2,045억 원을 나타냄.
- 일반회사채와 은행채 발행 규모는 각각 10.1%, 8.9% 감소한 28조 9,493억 원, 14조 7,646억 원을 기록함.
  - 일반회사채의 경우 대기업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99.9%를 차지한 반면, 중소기업 발행 비중은 0.1% 수준에 불과함.
- 금융채 발행 규모는 레버리지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카드채의 외형성장 둔화로 7.1% 줄어든 11조 9,800억 원을 기록함.
- ABS 발행 규모는 이동통신사 할부채권 유동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67.9% 증가한 9조 5,106억 원을 나타냄.

(2012년 상반기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현황, 금감원, 7/24)